

“연극으로 5·18 기록… 잊혀져선 안되잖아요”

2017 희망을 쓴다

6 오월연극 준비...청주대 연극학과

유족 사연에 영감...8명 의기투합
‘금남로 극단’ 이름 광주에 등록
주말엔 5·18현장 보존 운동도
2월중순 공동‘예술극장’서 개막

“관심이 줄어들면 기억 속에서도 점점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연극으로 5·18민중항쟁의 기록을 남기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기를 바라며...”

청주대학교 연극학과 학생 8명이 의기투합했다. 5·18연극을 무대에 올리겠다면서, 이들은 지난 연말 학기를 마치고마자 광주로 내려왔다. 작품에 사실성을 가미하기 위해 5·18 현장을 찾은 것이다.

5·18연극은 학교 선배이자 연극 선생인 박진철 씨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그는 우연히 광주일보를 통해 알게 된 ‘옛 전남도청을 지키는 5·18 유가족들의 사연’에서 영감을 얻어 대본을 만들었다. 이렇게 완성된 대본은 이들이 공연을 해야 할 연극이었다.

3학년 강민수(30) 대표를 주축으로, 3학년 박구용(23)·최진(23)·이동협(23), 2학년 김윤지(여·22)·윤봄(여·21)·차재훈(22)·하태희(여·21) 학생이 주인공이다.

이들은 5·18세대가 아니다. 5·18민중항쟁에 대해 교과서·영화·다큐멘터리로 접한 것이 전부다. 박제화된 교과서로는 5·18이 가슴에 와닿지 않았다. 하지만 잊혀



14일 광주시 동구 옛 전남도청 별관 앞에서 청주대 연극부 학생들이 5·18 역사현장 원형 보존 등을 촉구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저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광주를 찾았다.

극단도 광주에서 등록했다. 극단 이름도 ‘금남로극단’으로 지었다. 새해 첫날엔 무등산에 올라 해맞이를 하며 결의를 다졌다.

하태희 씨는 “첫 공연을 5·18이라는 굵직한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한 광주에서 하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라며 설레는 심경을 전했다. 하씨는 “5·18 마지막 항쟁자인 옛 전남도청을 지키고 있는 유가족을 만나고 5·18기념재단을 방문해 진실을 알게 됐다”며 “5·18의 현상이 보존되지 않고 아시아문화전당으로 바뀐 것을 이

해하지 못하겠다. 시민들의 무관심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래서 이들은 공연을 준비하는 동안 직접 현장에 나와 많은 시민과 청년을 만난다. 또 도청이 사라지면서 잊혀져 가는 5·18민중항쟁을 알리기 위해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광주 금남로에서 피켓 홍보활동을 하고, 5·18현장 보존 서명도 받고 있다. 이들은 동구 공동 ‘예술극장’에서 공연이 시작되는 2월 중순까지 홍보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강민수 금남로극단 대표는 “지금과는 5·18을 기억하지만 시간이 흘러 도청을 지

키는 유가족과 5월 광주를 기억하는 이들이 줄어들면 5·18은 잊혀져버릴 수 있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연극 작품과 기록을 남기는 것이라고 생각돼 연극을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주말 촛불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광주는 이것과 함께 5·18 항쟁지 보존 문제가 중요해 보인다”며 “우리 극단도 5·18 현장에서 직접 피켓을 들어 많은 사람들에게 항쟁지 보존의 필요성을 알리는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끝>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광주공항 소음 전국 최악...항공기 지나갈 땐 대화 불가

‘88 웨클’로 15곳 중 최고...소음 한도 초과지점도 최다

“軍 공항 이전 시급”

광주공항의 항공기 소음이 전국 공항 중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소음도도 증가하고 있고, 항공기 소음 한도를 초과하는 지점도 전국 공항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나 군 공항 이전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광주시가 발간한 ‘2016 환경백서’에 따르면 광주공항의 평균 소음도(2015년 기준)는 88웨클(WECPNL)로 전국 15개 공항 중 가장 높았다.

전국적으로 80웨클을 넘긴 공항은 군산(85웨클), 광주(84웨클), 대구(83웨클), 원주(82웨클) 등으로 광주를 포함해 5곳에 불과했다. 이들 공항은 군과 민간이 함께

사용하는 겸용공항으로, 군항공 소음이 원인이 되고 있다.

김포·김해·제주 공항도 전국 평균 소음도를 초과하긴 했지만, 이는 국제공항으로 항공기 운항횟수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평균 소음도가 가장 낮은 곳은 포항공항으로 63웨클이었다. 인천·양양(64웨클)과 울산(66웨클), 여수(67웨클), 무안(69웨클) 등이 뒤를 이었다. 관련법상 항공기 소음 한도는 75웨클이다.

광주공항 등 광주·전남지역 내 공항의 평균 소음도 역시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광주는 2012년부터 3년간 87웨클을 유지하다가 지난해 88웨클로 높아졌다. 무안 공항은 2012년과 2013년 64웨클에서 2014년 65웨클로 증가했다. 여수공항도 2013

■ 전국 공항별 평균 소음도 (단위: WECPNL)

구분	김포	김해	제주	청주	광주	대구	여수	울산	양양	군산	포항	사천	원주	무안	인천
2015	77	77	78	84	88	83	67	66	64	85	63	72	82	69	64
2014	77	85	80	85	87	83	69	60	65	84	70	70	82	65	63
2013	76	78	76	85	87	82	67	61	59	85	72	69	81	64	62
2012	74	77	77	85	87	83	67	60	56	84	72	74	83	64	63

년 67웨클에서 2014년 69웨클로 늘었다.

이는 전투기 등 군용기 이착륙에 따른 소음에 민간항공기 운항횟수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2012년 1만899회였던 광주공항 민간항공기 운항횟수는 2015년 1만2258회로 20%가량 늘었다.

특히 민간 겸용공항인 광주공항은 소음 측정 장소인 7곳 모두 항공기 소음 한도를 넘어섰다. 광산구 송대동은 무려 94웨클, 우산동은 91웨클을 기록했다. 이 지역은 항공기가 지나갈 때는 상하 대화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신도심인 상무지구의 치병동도 78웨클, 송정동은 80웨클로 역시 소음 한도를 초과했다.

광주시는 항공기 소음은 군 전투기 소음이 큰 영향을 주는 만큼 국방부에서 비행경로와 고도 조정, 방음정비고 설치 등 소음 저감 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광주공항 항공기 소음 문제의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은 소음 원인인 군 공항 이전이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40
해질녘 17:44
달출몰 21:50
달지름 10:05

웃기 꼭 여미세요

추위가 이어질 예정이니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

◇지역별 날씨 (℃)

광주	흐린뒤 맑음	-4/5	보성	흐린뒤 맑음	-4/5
목포	흐린뒤 맑음	-2/5	순천	흐린뒤 맑음	-3/6
여수	흐린뒤 맑음	-2/6	영광	흐린뒤 맑음	-5/3
나주	흐린뒤 맑음	-6/4	진도	흐린뒤 맑음	1/3
완도	구름조금	-1/5	전주	흐린뒤 맑음	-6/4
구례	흐린뒤 맑음	-7/5	군산	흐린뒤 맑음	-6/4
강진	흐린뒤 맑음	-3/5	남원	흐린뒤 맑음	-8/4
해남	흐린뒤 맑음	-3/5	축산도	흐린뒤 맑음	1/4
장성	흐린뒤 맑음	-6/4			

◇바다 날씨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북서~북	0.5~1.5	북서~북	0.5~1.0
남해 앞바다	북서~북	1.0~2.5	북서~북	0.5~1.5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1.0	북서~북	0.5~1.0
남해 서부 앞바다(동)	북서~북	1.0~2.0	북서~북	0.5~1.5
남해 서부 앞바다(서)	북서~북	1.0~2.5	북서~북	1.0~2.5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9:47 22:20	04:34 17:12
여수	05:22 17:50	11:50 --:--

◇주간 날씨

17(화)	18(수)	19(목)	20(금)	21(토)	22(일)	23(월)
-4/6	-2/7	-2/7	-2/6	-2/5	-2/6	-2/5

◇생활지수

	높음
	높음
	높음

칼바람에도 타오른 촛불

광주·전남 15곳 2500명

영하 3도의 매서운 한파 속에도 지난 14일 주말 촛불은 꺼지지 않았다.

박근혜 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6시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박근혜 퇴진 제12차 광주 시국촛불 집회’에 1000여명의 광주시민이 참가했다. 이들은 박근혜 체포, 부역자처벌, 적폐 청산을 주장했다.

이날 촛불집회는 30년전인 1987년 6월항쟁의 시발이 된 박종철 열사 30주기를 맞아 추모의식이 함께 진행됐다. 또 지난 7일 서울 광화문에서 분신·사망한

정원스님의 추모도 이어졌다.

임추섭 교육희망네트워크 상임대표는 “칼바람이 불어와도 반드시 촛불을 지켜내 희망을 주자”며 “반촛불 세력에 맞선 단호한 투쟁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백희정(44)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표는 “궁극적인 한일합의를 폐기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평화로운 해결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남지역 14개 시·군에서도 이날 시민 1500여명 참여한 가운데 12차 촛불 집회가 열렸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사업 전국화

100주년 기념 비전 선포

1929년 전국에서 일어난 학생독립운동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이 전국적으로 추진된다.

(사)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광주학생독립운동동지회·후손회는 14일 광주시 서구 화정동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강당에서 시민·학생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독립운동 100주년 기념 비전선포식’을 갖고 학생독립운동 기념사업의 전국화를 내용으로 하는 설립취지문을 채택했다.

취지문은 학생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전국 300여 개 학교가 주축이 되어 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를 창립해 기념식 및 기념행사를 공유하고 ‘이탈의 학생운동가’를 선정하며, 문화예술 사업을 통한 정신계승 등의 사업을 전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아 광주여 영원한 십자가여’를 지은 김준태 시인이 작사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의 작곡가 김충율씨가 작곡한 학생독립운동 주제곡 ‘우리 햇불되리라’가 최초로 발표됐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태양광발전소 분양모집

이런 분께 권합니다!!

- ▶안정되고 지속적인 수익을 원하시는 분
- ▶사업에 대한 투자를 고민하고 있으신 분
- ▶사업(장사)에 노하우 및 기술에 대해 자신 없는 분
- ▶창고, 축사, 공장, 땅 등 기타 부동산 소유하신 분

투자에 장점!!

- ▶특별한 기술적 관리가 필요 없습니다.
- ▶적자를 보지 않는 사업!!
- ▶안정적인 전기 매입처 (한국전력·전력거래소 / 18개 메이저 발전자회사)
- ▶안정적이고 반영구적인 발전설비 (모듈 수명 20년 보증, 보증서 발급)

상담문의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주)이엠

www.emsolar.kr

해만 뜨면 돈이 들어오는 태양광발전사업

태양광발전소 투자하고 싶은데 건물·땅 없는 분!!

H·P **011-608-9593**

CALL CENTER **1522-6570**

분양모집중

전국전역의 회사보유분 발전소